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여부 촉각

4월말 종료예정에도 법무부 결론 도출 못해
국회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 형성… 긴장 고조
제주도 "법무부 조만간 공문으로 통보" 예측

오는 4월 30일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제주에서 첫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수행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및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현재까지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견인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어 제주자치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했으나 중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면서 난개발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제주지사)은 지난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영주권 대상지역을 종전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관광개발사업 신규 승인 건수는 민선 4~5기 11개에서 민선 6기에는 4개로 줄었다. 제주도내 유원지개발사업 신규 승인도 민선 4~5기 5개에서 민선 6기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해말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영주권(F5)외국인은 4주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 주력산업 분야를 현재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경기도,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6개 지자체이며,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4월 30일 이전에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해 고시하면 된다"며 "빠르면 금주중 법무부에서 연장여부 등을 공문으로 통보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첨단산업 조성계획 발표

국가산업단지 수립 계획 제주 미포함

수도권 1곳·지방 14곳 등 총 15개 국가후보지 선정

정부가 미래차·수소·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강원·호남·영남·충청권 등 지방에 14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최대 규모 국가산단 수립 계획이지만, 제주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수도권 1곳, 지방 14곳 등 총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용인(시스템반도체), 대전(나노·반도체), 천안(미래모빌리티), 오송(철도클러스터), 홍성(미래신산업), 광주(미래자동차),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전북 익산(국가식품 클러스터2단계), 전북 완주(수소 특화),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대구(미래 스마트기술), 경북 안동(바이오생명), 경주(혁신원자력), 울진(원자력수소), 강원 강릉(천연물바이오) 등이다.

국가산단 지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정부 추진 지원단이 가동되며 빠른 곳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6년 착공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탄력 붙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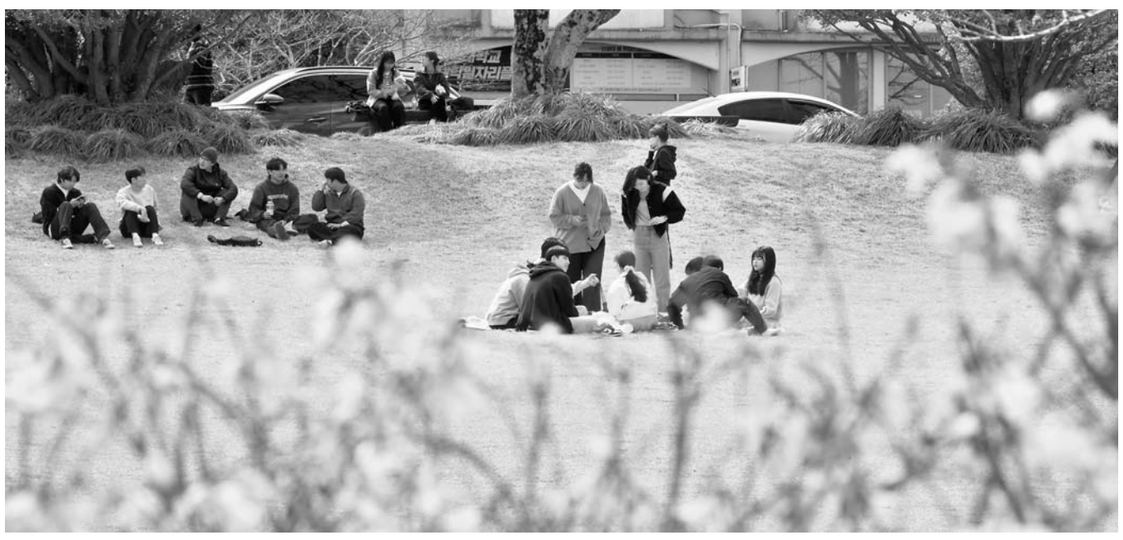
위 의원은 앞서 2015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위 소관인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위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회=부미현기자



포근한 햇살 맞으며 15일 제주대 아라캠퍼스 잔디밭에서 대학생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피크닉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부담 커"

어제 ESG 경영 지원방안 모색 위한 정책 간담회

전국적으로 ESG경영 도입을 선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ESG경영 도입에 필요한 경영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ESG 경영 적용 시 제약요소를 발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주혁신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이지만, 이에 필요한 경영환경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89.4%로 매우 높다"며 "대기업(80.6%)과 해외거래처(28.2%)를 중심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부담된다(61.1%), 거래처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36.1%)는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기업 ESG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ESG 관련 시설 지원 등 실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양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뀐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국회=부미현기자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19조에 의거 제35기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일동) 한라일보사 3층 회의실

3 안 건 (案件)
①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③ 사내이사 선임의 건

2023년 3월 15일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최 병 영
대표이사 김 건 일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大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